다산포럼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변이 생성의 힘

유 지 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연구실 한구석, 작은 냉장고 옆에 컵라면이 놓여 있다. 제대로 밥 챙겨 먹기도 귀찮을 때, 불량식품 특유의 맛으로 출출함을 달래려 사 놓은 간식이다. 학교 복도 구석에 놓인 커다란 휴지통에도 늘 빈 컵라면 그릇이 보인다. 이렇게 일상을 구성해 온 익숙한 소품인 컵라면이 이젠 다르게 보인다.

지난 5월 28일, 지하철 슬라이드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이 사라지며 남긴 소품들. 드라이버 같은 작업도구 옆에 나란히 놓인 포장된 컵라면 이미지는 울컥하게 만드는 상징물로 마음에 꽂혀 온다. "19세, 컵라면, 두 단어에 울었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입니다." "비정규직은 혼자 와서 죽었고, 정규직은 셋이 와서 포스트잇을 뗀다."

2인 1조라는 작업 안전규정은 안 지켜도 1시간 이내 사고 현장 도착 규정은 지켜야만 하는 부조리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부조리로 점철된 아픈 일상에 공명하는 수천 장의 쪽지 몽타주 잔영이 눈에 밟히는데 또 다른 날벼락이 떨어진다.

지난 6월 1일, 한 청년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순간, 귀가 중이던 공무원과 마주쳐 세상 떠나는 동행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청천벽력이란 것일까? 팍팍한 인생길 빨리 떠나기로 결심한 청년이 남긴 글에 "본심이 아닌 주위 시선에 신경 쓰여서 보는 공무원시험 외롭다"라는 내용을 언론에서 접하니 마음이 얼얼해진다. 단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런 상황은 남양주 지하철 사고,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이어진다.

빠르게 달라지는 인공지능 세상 재편 속에 사라지는 직업들, 그런 와중에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부조리한 취업난. 이런 난맥상 속에 해고 걱정 없이 정년을 채우는 공무원 시험에 청년들이 몰린다. 학교 게시판에도 여느 학생 자치활동보다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 광고물이 가득 차 있다.

청년들이 생성해 낸 신조어 '헬조선'과 더불어 '문송합니다'(문과생이라 취업이 안 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의 뜻을 배우며, 인문계로 분류되는 영화 전공인 나 같은 기성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수시로 자문하게 된다. 유교적 이슬람 같은 기성세대 심리를 칭하는 '유슬람' 풍토, 하여 "나도 소싯적에 해봐서 아는데…" 같은 장유유서적 어른 대접받는 풍토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만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각색영화인 '오베라는 남자'(A man called Ove, 2015, 하네스 홀름 감독)는, 장년의 까칠남 오베를 통해 변이 생성의 힘과 유머를 보여 준다. 고지식한 오베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아내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에 설상가상 평생직장이라 여겼던 철도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살아갈 의욕을 잃는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와 이해타산이 팽배한 일상이 펼쳐진다. 이제 그는 자살 기도를 한다. 근엄한 보수주의 자답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장 차림으로 천정에 줄을 내려 인생을 끝내려는 순간, 누군가가 들이닥쳐 방해한다. 철도에 뛰어내리려는 순간에도 하필이면 다른 청년이 먼저 뛰어내려 청년을 구해내야 할 반전이 벌어진다.

아늑해 보이는 공동 주택단지도 자기 멋대로 사는 이웃들 천지다. 차량 진입 금지 규정을 어기며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공무원도 알고 보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빼먹는 불한당이다. 그런 그에게 새로 이사 온 이슬람 여인은 자질구레한 일상의 도움을 요청한다. 냉정하게 물리쳐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이웃의 성가심을 투덜대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고지식한 오베에게 슬슬 변화의 조짐이 피어난다. 할 일이 생긴 것이다. 오베가 난폭하게 쫓아도 찾아오는 '길냥이'와의 관계 개선도 큰 웃음을 준다.

오베의 삶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당한 시스템에 분노하고 저항하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아내는 모습은 변이 생성의 희망을 보여 준다. 더러운 세상을 고쳐 나가는 데 한몫하며, 백인 장년 남성인 자신보다 약자인 이민 온 이웃을 돕는 모습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는 저항을 통해 변이 생성을 해 낼 용기를 준다.

교단에서

그해 6월, 윤승현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29년 전 6월은 서머타임이 실시되어 밤 9시가 되어도 어둠이 짙지 않았다. 계림동 서방 사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종례를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렀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서기도 하고, 시위현장에서 만나기도 했다. 일행이 함께 참여했더라도 최루탄 몇 방이면 흩어졌고, 지랄탄이 녹아내린 아스팔트 여기저기서 지랄을 하다가 식으면 시민들은 다시 모여들기를 반복했다. 광주고 앞을 지나 구역 사거리쯤에서 치약과 랩을 구했다. 식품을 포장하는 폴리에틸렌 얇은 비닐이 유행할 초기다. 얼굴에 치약을 바르고 랩으로 덮었다. 치약은 최루탄의 독한 냄새를 어느 정도 상쇄시켰고, 눈으로 흘러내리는 땀과 최루액은 랩으로 막았다. 이것이 시민들의 무장이었다.

금남로가 봉쇄되어 대체로 우리가 집결한 곳은 광주공원 부근이었다. 그날도 시민들은 금남로로 진출하기 위해 몇 차례 밀고 쫓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좀 쉬었다하자고 제안했다. 흰 와이셔츠를 입은 어느 중년이 도로에 우유를 쌓아놓고 마시면서 하라고 했다.

금남로 진출 주요도로는 광주대교와 백운동 서현교회 방면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지금의 중앙대교였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밤마다 밀고 밀리는 공방이 계속되었고 이 두 다리와 광주공원, 광주향교는 지형이 절묘하여 최루삼각지였다.

한숨을 돌리고 다시 대열을 정비했다. 특별히 지휘하는 사람은 없었다. 치약을 덕지덕지 바르거나 수건을 동여매서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시민 구별 없이 한마음으로 섞여있었다. 누군가가 서현교회 쪽이 밀리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공원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천변을 따라 올라갔다. 향교 부근까지 추격하던 경찰이 다시 다리 건너로 철수했다. 경찰이 물러나자 대접이라도 한 듯 '사아랑도오 며어엉에도'는 소리소리 높아졌고, 어깨동무를 한두 팔은 더욱 결속되었다.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다보면 선두대열이 매번 바뀐다. 어쩌다가 맨 선두에 서게 되어 스크럼을 짜고 노래를 부르면서 진퇴를 거듭하다가 우연히 옆사람을 봤는데 윤승현이었다. 치약 묻힌 승현과 나는 어깨동무를 한 채 서로 확인했다. 스크럼을 풀고 함께 대열을 빠져나왔다. 말없이 걸었다. 승현에게 '새끼보에 막걸리나 한 잔 하자'고 했을 뿐. 공원 앞 구동체육관 쪽으로 돼지가 온갖 부위로 절단되어 60촉 전구 아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루와 밤무더위 속에 누릇한 돼지머리는 시국이 한심한 듯 하늘로 향한 채 미동도 없었다. 막걸리 두 되가 찌그러진 양은주전자에 나왔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승현은 생각보다 여유로웠다. 서로에게 막걸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연결고리였다. 옆 테이블의 중년들도 한바탕 하고 온 것 같았다.

각 한 되씩 막걸리를 마시고 새끼보 몇 점을 남긴 채 대폿집을 나왔다. 잘 가란 말도 없이 눈빛만 나누면서 헤어졌다. 당시 승현은 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3학년 재학생이었고, 나는 30대 초반의 승현이 담임교사였다. 87년 6월 말까지 승현과 나는 수업이 끝나는 밤마다 광주천변 어딘가에서 함께했었다.

승현은 강진 도암중을 졸업하고 가정형편 때문에 광주의 산업체특별학급에 진학했다. 한 신문사 충장지국의 신문배달 소년이 되었고, 저녁 6시에 시작하여 밤 9시에 수업이 끝나는 근로학생이었다. 산특 3부생이라고 불렀다. 말이 없고 강단졌으며, 작은 체구이지만 내공이 있어 보였다. 2학년 때 부당한 대우에 맞서다가 신문배달과 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무등산으로 잠적했다.

결석 일주일 쯤 승현이 학교 앞에 나타났다. 승현은 나를 보자마자 튀었다. 광주교대를 지나 두암동 쪽으로 뛰는 승현과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잡지는 못했지만 인연은 계속 되어 다시 가구공장에 취업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대학 진학 후 '광주전남대학생문학연합' 의장활동도 하고 '오월문학상'도 수상했다. 그 후 십 수년을 민중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에서 주요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광주로 다시 내려왔다.

나는 '꼰대'가 되었고, 너는 오십 줄이 되어가는 장년이지만 활동은 여전하구나. 이번 6월에는 서울 특별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유리문을 고치다가 컵라면 먹을 시간 없이 불안전하게 가버린 젊은 영혼을 위해 잔을 올리고, 그 퇴주로 목마름을 달래보자. 광주공원 앞에서.

기 고

당신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신 춘 자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남지회 회장

어릴 적 노점에서 빌린 만화책을 읽으면서 석양의 지는 해를 붙잡고 싶었다. 중학교 때부터 세계명작 소설을 읽으며 날을 새기도 했다. 음악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 책상 아래 무릎 위에 소설책을 올려놓고 읽으며 객지에서 부모님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

일제 강점기에 여성도 군대로 끌어갈 때 큰 언니를 조혼시킨 고정관념으로 병치레가 잦은 부모님은 나의 대학진학을 반대했다. 하지만, 일본 동경에 둘째 언니 시가가 있고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동경으로 의상 디자이너 연수 떠날 준비를 했다.

부모님 반대에도 상경하여 직장에 나가며 의상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해서도 시를 썼다. 부모님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고향에 돌아와 종가 3분 시어머니가 출산하신 8남매 중에 둘째 며느리가 되었다. 친 시어머니는 김덕령 장군의 후손이셨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재취시어머니의 자손들에게 영어, 바둑, 탁구를 가르치며 시 조모님과 선영을 모시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틈이 없는 시집살이에 내 꿈을 잊어버렸다.

대문 앞 축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들들 걱정에 삼국지를 읽으면서 집중이 되지 않아 읽은 자리를 뒤 돌아가 다시 읽으며 국문학과에 입학도 못하고 가사에 얽매였다. 하지만 연년생 아들 삼형제를 재수생 없이 대학에 입학시켜놓고 세월을 태운 잿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무작정 일기를 썼다.

'광주일보 주부일기' 코너에 내 글이 실려서 원고료까지 받았다. 그때부터 무작정 마음에서 분수처럼 솟은 언어들을 글로 썼다. 주부대학에서 1개월에 2회 정도 몇 개월 동안 대학 교수님의 문학 강연을 들었던 것이 문학 수업의 전부였다.

그 뒤 '주부 생활환경 수기' 시장상을 수상했지만 주변의 공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절필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글쓰기를 그리워하다가 문화원 창간호에 기재할 여성 글짓기 공모전에서 '막내딸의 사모곡'이라는 제목으로 수필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고 적지 않은 상금을 받았다.

그 상을 준 문화원장의 추천으로 '수필'로 등단하고 다음해에 주부대학에서 문학 강연을 하신 원로 국문과 교수님 추천으로 '시'로 등단했다. 교수님은 다독하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칭찬을 하셨다.

등단은 지면에 글을 발표하는 시작일 뿐이다. 그때부터 분수처럼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시어들을 무작정 썼다. 명문거족의 자손답게 애국,애족,애향 애교 정신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삼일운동의 시발 학교인 전남여중고 독서회 후배로서 쓰면 쓸수록 내 실력의 한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독서에 집중했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 장르를 두루두루 섭렵해야 한다. 그 다음 자기에게 잘 맞은 한 가지 장르를 중점적으로 쓰면서 여러 장르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은 '작가 노력의 결과'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희곡작가 유진오닐은 철학, 역사, 소설, 심리학 등 2만 여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다독한 작가로 유명하며 시도 썼다. 톨스토이도 소설가인데 희곡을 썼다.

엘리어트(T.S.EIiot)은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희곡을 쓰면서 말년을 보냈다. 그는 훌륭한 문인이 되려면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동서고금의 작품을 다 읽어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문학이 용광로의 쇳물처럼 머릿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축구나 야구 선수도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적성에 맞은 포지션을 찾아 전념한다.

누구나 유명한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글을 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글을 쓸 수 있다. 진실로 깨어있는 의식에서 읽고 쓰기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 장르라도 모두 다 쓸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시상이 떠오를 때에 쓰면 된다. 열심히 읽고 써서 여러 지면에 발표하고 저서를 출판하면 작가가 될 수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양림동 선교사 사택 철거, 문화재 훼손 아닌가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광주기독병원 내 한 건물의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이 건물이 예전에 '선교사 사택'이었다며 훌륭한 문화재 감이니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병원 사유재산이더라도 건물을 살려 주변 양림동의 근대문화유산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림동에는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 세운 학교나 병원 등으로 꾸며진 근대역사문화마을이 들어서 광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제의 선교사 사택은 지난 194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유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이어서 문화재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모두 4채였던 건물은 현재 1채만 남았고, 외벽 일부가 근대 건축 방식으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기독병원 측은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 반발로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광주시 남구의회 또한 어제 성명을 내고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앞 선교사 사택은 지역의 근대역사문화유산"이라며 "후세에 온전히 물려 줄 수 있도록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연히 이 건물을 인근 근대문화유산과 연결한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자산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사택이어서 보존가치가 높다는 의회의 입장과는 달리 병원 측은 60년대에 지어져 별 가치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물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력이나 얽혀 있는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 남구가 전문가 고증을 통해 건물의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처리 방식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아 보인다.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고색창연한 건물에 숨어 있을지 모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먼지 속으로 날려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야 되겠는가.

민생 국회 만들랬더니 재탕·삼탕 입법만…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기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국회의원들은 한때 마지못해 반성하는 시늉을 하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국회 개혁은 온데간데없기 때문이다. 대신 '금배지'들의 관심은 온통 국회의장 쟁탈과 상임위 배정에 쏠려 있다.

법안 발의 또한 마찬가지다. 일단 발의 건수는 많다. 아직 원(院) 구성도 안됐지만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이달 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무려 100건에 이른다. 가히 '법안 홍수' 사태라 부를 만하다. 겉만 보면 20대 국회는 분명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딴판이다. 국회법은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비용 지출이 예상될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킨 법안은 100건 중 고작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5건 중 48건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제외한 47건은 비용 추계 자료를 첨부하지도, 요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원 자신도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모르는 법안을 무조건 제출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보여주기 식 입법'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거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을 '재탕' '삼탕'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양(量)보다 법안의 질(質)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많이 발의할수록 일 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이를 알면서도 눈속임하려 들고 있다. 이는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다. 어찌해서 20대 국회마저 무능과 비효율로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를 답습하려 하는가.

無 等 鼓

비거(飛車)

미국 오빌·윌버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선보인 때는 1903년 12월 17일이다. 이날 형 오빌이 '플라이어 1호'를 조종해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 이들의 역사적인 첫 비행 이후 100여 년 동안 비행기 제작 기술은 음속(音速)의 수 배 이상이나 빠르게 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보다 300년 앞선 16세기에 조선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면? 누구라도 그런 말이 선뜻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현대의 백과사전 격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비거(飛車) 변증설'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가 비거를 만들어 타고 성안으로 날아 들어가 벗을 태워 성 밖으로 30리를 비행한 뒤 착륙해 왜적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선배 실학자인 신경준이 저술한 '차제책'의 일부 내용을 재인용한 그는 글 말미에 "비거는 새가 나는 원리를 본받아서 바람의 기운을 빌어 기계를 움직였으므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의 비거는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하다"고 적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 비거를 만든 이는 김제 출신 무관 정평구(1566~1624)로 실존인물이다. 구전에는 그가 새들의 비행 모습을 관찰해 비거(하늘을 나는 수레)를 제작했고, 임진왜란 때인 1592년 진주성 전투 당시 비거를 이용해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왜군을 정찰하거나 동료를 탈출시켰다고 전해진다.

한 항공 학도가 지난 2002년 '비거 변증설'을 접하고 비거에 사로잡혔다.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이봉섭 항공기 설계 연구가는 '내 손으로 비거를 다시 만들어 날리겠다'며 복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비거 구조와 형태, 제작법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나 설계도가 남아 있기 않기에 당시 이용 가능한 재료와 기술 등을 유추해 제작했다. 그는 비거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출발점이자 상징이 되기에 충분한 민족 고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물론 비거가 라이트 형제의 위업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헌 속에 짧은 문장으로 겨우 남아 있는 조상의 발명품이 젊은 학도의 노력으로 다시 만들어져 한국의 과학사(史)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